

무신란 피란 문인 시문을 통해 본 남한강 유역의 피세 공간

이새롬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한시 전공

sae410@daum.net

I. 머리말

II. 은거처와 피세처의 구분

III. 무신란을 겪은 세 문인의 문학적 형상화

IV. 맺음말

I. 머리말

남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오대산 검룡소에서 발원하여 충청북도 북동부와 경기도 남동부를 흘러가다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흐른다. 조선시대에 남한강 하류 지역은 수운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상황 때문에 남한강 유역은 정치적 상황에 의해 한양을 벗어난 문인들이 잠시 거주하며 한양의 상황을 살피기에 적당한 곳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남한강 유역을 유람하거나 은거하는 문인의 수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증가했다.

『택리지』에서도 여주, 충주, 원주와 같은 남한강 유역의 지역적 특징을 설명하면서 한양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많이 살았음을 강조했다.¹ 동시에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였으며, 골짜기가 깊어 숨어 살기 좋은 피란처로도 알려졌다. 이를 입증하듯 1728년에 무신란(戊申亂)이 발발하자 문인들이 제천과 단양 등으로 이동하며 피란처를 찾은 현상이 있다. 특히 이미 남한강 유역에서 은거하던 이들이 남한강 유역의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이를 통해 당시 문인들이 남한강 유역 내에서도 은거지와 피세지로 공간을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전란 등을 겪은 뒤의 현상이자, 경관 및 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²

1 李重煥, 『擇里志』 「八道論」.

2 조선 후기에는 『택리지』를 비롯한 지지류 외에 『鄭鑑錄』 등 비기서도 다양하게 등장한다. 남한강 유역 중 단양과 영춘 등이 숨어 살 만한 곳으로 손꼽혔다. 『정감록』 등을 기반으로 한 십승지지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정치영, 「조선시대 유토피아의 양상과 그 지리적 특성」, 『문화역사지리』 17(2005); 양승목, 「조선후기 십승지론의 전개와 ‘살 곳 찾기’의 향방」, 『한국한문학회연구』 63(2016); 한종구, 「충청지역 십승지지의 고찰」, 『동방학』 45(2021).

남한강 유역은 본래 여주 및 사군이 있어 유상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렇기에 남한강 유역과 관련된 연구도 대부분 조선 시대 문인들의 유람 의식을 고찰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³ 은거지로서 남한강 유역이 지닌 의미에 대해 주목한 성과로는 한강 유역의 전장지를 중심으로 은거 문인의 문학과 공간 인식을 고찰한 권경록⁴의 연구를 손꼽을 수 있으며, 이후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다.⁵

본격적으로 조선 후기 문인들이 남한강 유역을 피세(避世)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은 이태희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이태희는 조선 후기 사군 유기에 드러나는 유람자의 공간 인식 중 하나로 ‘피세(避世)와 피화(避禍)의 은거지’를 손꼽고, 관련 기록들을 분석했다.⁶ 이 연구에서는 특히 험박한 지세가 화란(禍亂)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 점을 지적했다. 이후 남한강 유역의 수려하고 속세와 단절된 공간의 이미지가 도교 문화적 공간 인식과 연관됨을 밝혔다.⁷ 해당 연구는 피세 지역으로서의 사군의 이미지를 처음 소

- 3 고연희, 「金昌翕, 李秉淵의 山水詩와 鄭敷의 山水畵 비교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20(1997); 윤경희, 「金昌翕의 丹丘日記 연구」, 『민족문화연구』 41(2004); 이태형, 「洪直弼의 寧越 유람과 節義의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8(2005); 김주부, 「息山 李萬敷의 山水紀行文 文學 研究: 『地行錄』과 『陋巷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박은순, 「朝鮮時代 南漢江 實景山水畵 研究」, 『온지논총』 26(2010); 허원기, 「다산 정약용의 남한강 심상 지리」, 『국제어문』 59(2013); 윤지훈, 「淸風의 山水를 素材로 한 漢文學 作品의 諸特徵: 龜潭과 玉筍峯 關聯 作品을 中心으로」, 『동방한문학』 72(2017); 김은정, 「金昌翕의 丹丘유람과 문학적 형상화」, 『어문학』 141(2018a); 김은정, 「安東 金門의 四郡 유람 연구」, 『돈암어문학』 34(2018b); 김윤조, 「암벽에 이름 새기기 풍조의 유행과 단양 사인암에 새겨진 이름에 대한 고찰」, 『한국실학연구』 39(2020).
- 4 권경록,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文學地理 연구: 楊根·驪州·廣州 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9).
- 5 어강석, 「조선 시대 문인들의 시문에 나타난 ‘忠州’에 대한 지역 인식」, 『국제어문』 82(2019); 이새롬, 「朝鮮 後期 文人의 南漢江 流域 空間 認識과 詩의 形象化」,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22a); 이새롬, 「조선 후기 은일 공간으로서의 충주」, 『충주학연구』 1(2022b); 이새롬, 「檜巢 金信謙의 隱逸 의식과 시세계」, 『고전문화연구』 62(2022c).
- 6 이태희, 「朝鮮時代 四郡 山水遊記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15).
- 7 이태희, 「조선시대 사군(四郡) 관련 산문 기록에 나타난 도교 문화적 공간인식의 양상과 의

개한 연구이면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도교적 세계관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현재 무신란과 관련된 논의들은 대부분 사학계에서 성과를 이루었으며, 무신란의 과정과 영·호남에서의 활동, 이후의 정치적인 영향력 등을 파악하는 연구 등 무신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남겼다.⁸ 이 밖에 관련 문헌을 고찰하는 연구와 이인상의 시문을 통해 무신란이 영남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하는 연구가 다소 성과를 이루었으나⁹ 무신란으로 피란을 겪어야 했던 이들의 상흔을 살피는 데까지 도달한 연구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¹⁰

이 글에서는 피세 공간으로서 남한강 유역의 특징을 무신란을 겪었던 이들의 경험과 그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피란처로 남한강 유역을 택한 문인이 창작한 문학 작품을 통해 조선 후기 문인들의 피란 경험과 남한강 유역에 대한 공간 인식을 살피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학적 형상화했는지 고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이를 통해 남한강 유역의 다양한 이미지를 구현하여 남한강 유역이 지닌 공간적 의미를 밝히고, 나아가 공간에 얹힌 문화적 의미를 읽어 내고자 한다. 이는 나아가 남한강 유역이 문학 공간으로서 지니는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하

미], 『코기토』 81(2017)

8 변주승, 「18세기 전라도 지역 무신란의 전개과정: 「戊申逆獄推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9(2013); 허태용, 「1728년 戊申亂의 진압과 『戡亂錄』의 편찬」, 『한국사연구』 166(2014); 허태용, 「英祖代 蕩平政局下 國家義理書 편찬과 戊申亂 해석: 『勘亂錄』, 『御製大訓』, 『闡義昭鑑』의 비교 검토」, 『사학연구』 116(2014); 고수연, 「『戊申逆獄推案』에 기록된 戊申亂 叛亂軍의 성격」, 『역사와 담론』 82(2017).

9 최선혜, 「丹陵 李胤永의 시문에 나타난 영남의 인상: 1728년 戊申亂의 흔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7(2014); 황재문, 「1728년 戊申亂 관련 문헌의 재검토」, 『국문학연구』 49(2019).

10 관련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박상석의 연구가 있다. 박상석, 「전란에 뒤흔들린 민간인의 일상: 민간인의 戊申亂 체험 실기 연구」, 『열상고전연구』 54(2016).

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조선 후기 복거지 찾기 등 당대 사회에서 유행이 일었던 공간 탐색 열풍에 대해 지리지나 비기서가 아닌 실제 피란처를 찾아 떠난 문인들의 기록을 통해 그 일면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II. 은거처와 피세처 구분

전통적으로 남한강 유역은 한양과의 접근성이 좋아 한양에서 이거(移居)한 문인들이 자리 잡기에 용이했고, 선영(先塋)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정치적 상황이 불리해졌을 때, 조선시대 문인들은 선영이 있는 공간이나 혹은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은거를 택했다. 남한강 유역 중 여주와 충주는 16세기 초 기묘사화(己卯士禍) 당시 많은 문인들이 내려간 지역이다. 여주는 남한강의 하류로 경기(京畿) 남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다른 남한강 유역보다 한양과 거리가 가까웠다. 육로로도 200리가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으므로, 한양에 거주하던 문인들이 잠시 거주하며 한양의 상황을 살피기에 적합했다. 조선 중기에는 기묘사화를 계기로 문인들이 남한강 유역인 여주와 충주로 내려왔다면, 조선 후기에는 신임옥사(辛壬獄事)를 계기로 많은 문인들이 그곳에서 은거하게 된다.

특히 남한강 유역 중에서도 주로 여주와 충주에 은거한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한양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남한강변의 나루도 충주와 여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는데,¹¹ 이는 남한강 유역 중에서도 여주와 충주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았음을 말해 준다. 17세기 초 여주에 은거한 이식은 여주의 여강(麗江)에 배를 띄우니 하루 만에 한양에 도착했다고

11 이상배, 「조선시대 남한강 수운에 관한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5(2000), 153쪽.

하면서 여강과 한양이 가까움을 강조했다.¹² 이처럼 한양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지방의 산림처사로 살아야만 했던 다른 지역의 은거 문인들에 비해, 남한강 유역에서 은거했던 문인들은 중앙 정계로 돌아갈 만한 기회를 어느 정도 상정하고 있었다. 남한강 유역을 한양과 비교적 가까운 공간이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중앙 정계를 향한 미련을 간직한 채 살았던 것이다.¹³ 곧 남한강 유역의 여주와 충주, 원주 일대는 조선 후기 문인들에게 가거지(可居地)이면서 은거처(隱居處)로 인식되었다.

주목할 점은 모두 ‘살기 좋다.’고 언급한 여주 및 충주 등에서 ‘은거’하던 노론계 문인들이 무신란이 일어나자 자신의 전장에서 이동하여 또 다른 남한강 유역인 단양이나 제천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여주에서 은거했던 민우수는 노모를 모시고 제천으로 이동했으며, 충주에서 은거했던 안증관도 제천으로 이동했다. 남한강 유역에서 은거한 것은 아니지만 김신겸은 해배 후 한산에서 머물렀는데, 무신란이 발발하자 제천으로 피신을 갔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문인들이 자신이 전장을 마련할 만한 공간과 피란의 공간을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¹⁴ 특히 원경하의 경우 난리가 일어날 당시 남한강 유역인 원주와 여주에 머물렀으나 두 곳은 피세(避世)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하며, 적당한 공간을 찾기 위해 단양과 영춘, 청풍 일대를 유람했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조선시대 지리지에서 언급한 각 남한강 유역의

12 李植, 『澤堂集』 권3 「自驪江舟行一日至漢江 得五絕句」, 『택당집』 권3에는 이 제목으로 두 수의 시만 실려 있고, 『택당집』 속집 권3에 「自驪江舟行一日至漢江 翌日 登讀書堂小樓 少睡得五絕句」의 제목 아래 두 수가 있다. 나머지 한 수는 현전 해당 문집에 보이지 않는다.

13 이새롬, 앞의 논문(2022a), 215쪽.

14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미 可居處, 卜地 등에 관심이 꾸준했다. 자세한 논의는 양승목, 「조선후기 살 곳 찾기 현상의 동인과 다층성: 십승지와 『택리지』 그리고 그 주변」, 『한국한문학연구』 84(2022); 안대회, 「조선 후기의 좋은 집터, 이상적 거주공간의 이론과 실제: 『임원경제지』 「상택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2019)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지리적 특징을 비교하면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여주나 충주는 남한강 유역 중에서도 나루터가 있어 교통이 편리한 곳인데다 조창(漕倉)이 있어 물산이 풍부한 땅이었다. 『택리지』는 여주의 백애촌(白厓村)과 충주의 목계를 살기 좋은 터로 손꼽았다. 여주에 대해 “한양과는 물길이나 육로로 200리가 채 안 떨어져 있다.”라고 하며 한양과의 가까움과 백애촌이 한양과 통하는 주요 교통의 요지임을 언급했다.¹⁵ 또한 충주에 대해 “이 고을은 한강 상류에 있어 수로로 왕래하기에 편리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에 터를 잡고 사는 한양의 사대부들이 많다.”¹⁶라고 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여주를 가거지(可居地) 혹은 은거지로서는 적당한 곳이나 피세를 위한 공간으로는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은 적군의 침입이 빠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동국여지지』에서는 충주를 “남방을 견제하는 인후(咽喉)와 같은 요충지”로 여겼지만 이는 충주가 군사적·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곳이 ‘숨어 살기’에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주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원주에는 ‘흥원창’이라는 조창이 있었는데, 이 흥원창은 원주와 영월, 평창 등에서 전세를 거둬 한양으로 조운하는 요충지였다. 『택리지』에서는 산들이 좌우로 관쇄(關鎖)한 형세이므로 지리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했다.¹⁷ 또한 강원도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물자가 수송되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며, 대대로 거주하는 사대부들이 많다고 했다.

이처럼 남한강 하류에 해당하는 여주, 충주, 원주는 다른 남한강 유역에 비

15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강원편, “驪州邑治在江之南 距漢陽水陸未滿二百里. 邑西有白崖村 一曲長江 自巽入艮 橫帶於前是爲江上第一名墟”.

16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충청편, “邑爲漢水上流 水路便於往來. 故京城士大夫自古多卜居於此”. 번역은 이중환(저), 안대회·이승용(역), 『완역 정본 택리지』(서울: 휴머니스트, 2018), 182~183쪽을 참조했다.

17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강원편, “江外山 關鎖於左右 地利最佳 茲爲江原一道通京輜會之所. 多世居士大夫”.

해 한양과의 거리가 가깝고 상대적으로 형세가 험준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문인들이 모여 사는 가거처로서는 주목받았지만 난리를 피하기에 적당한 곳은 아니었다.

이와 달리 제천 및 단양, 영월은 험준한 산에 에워싸인 지역이라 험박한 공간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택리지』에서는 제천에 대해 “제천은 북쪽으로는 평창에 가깝고, 동쪽으로는 영월에 인접해 있다. 첩첩산중의 깊은 골짜기라서 참으로 병란을 피하고, 속세를 벗어나기에 적합하다.”¹⁸라고 했다. 『택리지』뿐만 아니라 『대동여지』에서도 제천현에 대해 “땅은 궁벽하고 백성들은 소박하다.”¹⁹라고 했는데, 궁벽한 땅이란 살기에는 좋지 않으나 숨어 살기에는 좋은 땅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지세가 가장 높다[地勢最高].”라고 하며 제천이 궁벽한 공간임을 강조했다.

제천뿐만 아니라 단양도 많은 문인들이 속세와 동떨어진 피세의 공간으로 인식했다. 사인암 인근에 은거처를 마련한 이윤영은 「북거기」에서 스승인 윤심형이 단양에 대해 “내가 가는 곳은 산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땅이 후미지고 가난하며 길이 험하고 깊숙하여 몸을 편안히 할 수 있다. 세상의 도의 걱정스러움이 이와 같아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으니 너도 이곳에 와서 은거할 곳을 마련하라.”²⁰라고 했음을 밝혔다. 단양은 궁벽하다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세상과 단절된 곳처럼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윤영이 머문 사인암 인근 지역 외에도 단양의 가은암산성(加隱巖山城)과 독락성(獨樂城)은 피세처로 잘 알려져 있었다.

가은암산성에 대해 『동국여지』에서는 “안에 세 샘이 있는데 험하고 막혔

18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충청편, “北近平昌 東接寧越 萬山深峽 眞可以避兵避世”.

19 『東國輿地志』 권3 地僻民朴.

20 李胤永, 『丹陵遺稿』 권11 「卜居記」, “先生曰 余之所往 不但山水之美也 地僻而貧 路險而奧 可以安身. 且世道之憂如此 無一可樂. 爾其往而謀棲遯之所也”.

다. 고려 말년에 제천, 청풍, 본군 사람이 여기에서 왜적을 피하였다.”라고 하며, 피화의 공간으로서 이미 그 역할을 했음을 입증했다. 또한 『택리지』에서는 “영동 지역과 네 고을의 산수가 아름답기는 하지만 영동은 땅이 외지고 바다에 가까이 붙어 있으며 단양은 험벽하고 협소하므로 두 지역 모두 살 만한 땅은 아니다.”²¹라고 하며 단양이 협소하고 험난한 지형을 지녔기에 가거지로서 적당하지 않음을 언급했다.

같은 강원 지역의 남한강 유역인 원주와 달리 영월도 험준한 산과 척박한 토양으로 인해 가거처로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택리지』에서는 강원도 지역에 대해 산천이 험준하다고 하면서 “산수가 기이한 곳이 많기는 하나 한때 난리를 피하기에 좋을 뿐 대대로 살기에는 좋지 않다.”²²라고 하며 살 만한 곳은 아니지만 피세처로 적당하다고 했다.

이규경은 『오주문장전사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전국의 숨어 살 만한 장소에 대해 정리하며 「악토가작토구변증설(樂土可作菟裘辨證說)」을 남겼는데, 여기에 남한강 유역 중 영월, 단양, 청풍, 충주 등을 언급했다. 해당 글에서 이규경은 숨어 살기 좋을 만한 곳, 속세를 피하기 좋은 곳, 난세에 살기 좋은 곳 등을 구별했다. 영월 상류 지역을 “속세의 자취를 숨기기 좋은 곳[可藏塵蹟].”라고 했으며, 충주 및 청풍에 대해서는 대부분 은거를 할 만한 곳이라고 했다. 그러나 단양 가차촌 독락성을 포함한 몇몇 공간을 피란처라고 언급하기도 하며,²³ 숨어 살 만한 곳이라 하더라도 은거를 위한 곳인지 피란을 위

21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충청편, “嶺東地僻逼海 丹陽險阻狹隄 俱非可居之地也”.

22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강원편, “大抵北自淮陽 南至旌善 皆亂山深谷 … 峽村雖有溪山之奇 可一時避兵 不合世居”.

23 李奎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樂土可作菟裘辨證說」, “丹陽郡有駕次村 在治南十里 周十餘里 有人家五六十 土皆膏沃稻田. 兩山環擁 巖流絕勝 有上中下仙巖 然四面皆險絕 屢通人行 村東南有山城 名曰獨樂. 其西南北則皆絕壁 不復設城 獨東偏略設雉堞. 亂石崎嶇乃上 中有雙川 足容數千人 蓋古避亂處也”.

한 곳인지를 구분하며, 단양과 제천, 영월 일대를 주목했다. 원경하는 사군 일대를 유람하며 남긴, 「입동협기(入東峽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장산에서부터 난리가 일어날 동안 있다가 돌아왔는데, 황려는 몸을 의탁할 만한 곳이 아니었다. 듣자하니 東峽의 땅이 외지고 형세가 험하여 난세에 숨어 있기에 좋다고 하였다. 마침내 김원행과 서로 다녀오기로 약속하였으니 무신년 4월 20일이었다.²⁴

피세처를 찾기 위한 이 여정에서 원경하는 철저하게 ‘숨어 살기 좋은 곳’만을 찾아 떠난다. 원경하는 이미 난세에 숨어 있기 좋은 곳으로 동협, 곧 단양과 청풍 일대가 잘 알려져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고향이자 은거였던 원주와 여주는 난리를 피하기에 좋은 곳이 되지 못한다며, 피세처와 은거지를 구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²⁵ 이와 같은 지리와 지형에 대한 관심은 유람의 목적이 산수의 아름다움이 아닌, 험난한 땅을 나서는 데까지 이르게 했다. 특히 단양의 교내산은 진나라의 무릉도원에 비견될 정도의 피화 공간으로 조선 후기 문인들에게 인식되었다.

세상에 전해지길, 교내산 안에 八判洞이 있다 한다. 골짜기는 끊어지고 봉우리는 첩첩 모였고 흐르는 샘물이 돌아 나가는데 그 가운데 토지가 펼쳐져 100여 집은 먹고 살 수 있다. 옛날에 8명의 판서가 세상을 피해 그곳에 살았는데, 우물과 연못과

24 元景夏, 『蒼霞集』 권7 「入東峽記」, “余自長山經亂而歸 以黃驪非棲身之所. 聞東峽地僻而勢阻 當亂世可以遁藏. 遂與金元行伯春相約往觀 時戊申四月二十日也. 平明發行 過牛灣 歷訪閔教官 昌洙氏小談 又發行十五里 到安平申仲孝家午飯. 前進行四十里 宿可興店舍”.

25 이와 같은 인식에 대해 이태희는 『鄭鑑錄』과 같은 비기서의 수용과 그 인식에 유사성이 보인다고 했다. 이태희, 앞의 논문(2017), 164쪽.

주춧돌과 방아가 완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²⁶

인용문은 이윤영이 남긴 「교내산기」이다. 교내산의 팔판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것인데, 끝내 이윤영은 자신이 단양에서 살았음에도 보지 못했다고 하며 호사가의 이야기나 신선의 공간으로 생각할 정도로 숨은 공간이다. 이윤영은 교내산까지 찾아갔지만 결국 팔판동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유람을 마치며 아쉬움을 남겼다.²⁷ 교내산과 교내산에 숨겨진 공간은 여러 문인들에게 언급되었으며²⁸ 모두 이곳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지만 끝내 찾지 못해 무릉도원처럼 이상향의 공간으로 남겨야만 했다.

은거지와 피세처를 구분한 조선 후기 문인들은 남한강 유역에서 은거하는 와중에 난리를 피할 곳을 찾아 떠나 자신의 몸을 숨기고자 했으며, 위기 상황에서 처신하기 위한 공간으로 자신의 은거지보다 더 깊고 험박한 곳을 찾아 떠났다. 대부분 ‘살기 좋은 땅’이라고 여긴 여주와 충주 지역에서 거주하다 ‘난세를 피하기 좋은’ 제천과 단양 등으로 이동했는데, 남한강 유역 내에서도 상류와 하류에 따라 은거처와 피세처로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피란 과정에서 남긴 문인의 기록은 은거지에서의 생활과 다른 삶과 감정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문인들이 겪은 상황과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여주에서 단양으로 피세처를 찾아 떠난 원경하와 충주에서 은거하다 제천으로 피란을 간 안중환, 호서 지역에서 제천으로 피란을 떠난 김신겸의 문학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피겠다.

26 李奎景, 『丹陵遺稿』 권11 「橋內山記」, “世傳橋內山中 有八判洞. 壑斷峯集 流泉潄澗 中關土地 百家可食. 古有八判書避世居之 其井池礎確 宛然具在”.

27 李奎景, 『丹陵遺稿』 권11 「橋內山記」, “不知八判洞何處開局 風水一會也. 雖使我見之 非仙人之無族 老人之無知 不可居也”.

28 원경하·김이만 등이 교내산을 피화 공간으로 인식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태희, 앞의 논문 (2015), 158~165쪽을 참조할 수 있다.

III. 무신란을 겪은 세 문인의 문학적 형상화

‘이인좌(李麟佐)의 난’으로도 불리는 무신란은 1728년에 발발한 반란으로, 조선 시대 최대의 반란으로 손꼽히는 사건이다. 영조 초기 중앙 정계에서 배제되었던 소론 강경파인 준론(峻論)과 남인, 소북 세력이 연합하여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났다. 지역별·당파별로 여러 문인들이 연루되어 목숨을 잃었으며, 무신란 때 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로 인해 환국을 거듭하던 각 봉당의 세력들이 약화되었으며, 이후 공신녹권을 받은 이, 유배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이가 수천 명이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컸다. 정치적으로는 준론과 남인의 세력을 약화되고, 노론계 세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노론계 문인들도 당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반란에 위협을 느꼈을 터였다. 이 글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원경하·안중환·김신겸은 모두 노론계 문인이며, 관직에 머물지 않았던 이들이다. 이는 당시 무신란이 관직에 상관 없이 노론계 문인에게 큰 위협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세 문인의 피란 경험이 담긴 문학 작품들을 검토하면 피란을 가야 했던 노론계 문인의 시각에서 경험한 무신란 관련 기억과 대응, 피세처에 대한 인식 등을 함께 고찰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1. 피란처를 찾아 떠나는 여정, 원경하의 「입동협기」

창하(蒼霞) 원경하(元景夏)는 조선 후기 노론계 문인으로 영조조에 대탕평(大蕩平)을 주장했을 만큼 탕평책에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영조조 사가(四家) 중 한 사람인 오원이 있던 종암(鐘巖)에 자주 찾아가 교유했으며, 김창집(金昌集)의 손자인 김원행과 교유했다. 원경하는 탕평책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영조의 신임을 받아 이조참판, 봉조하 등을 역임했고, 사후에는 영조가

표1-원경하와 오원의 유기

작자	작품명	여정	명소	비고
원경하	入東峽記	여주-충주-청풍-단양-청풍-충주-여주	寒水齋, 沈生家, 雪馬洞, 七松亭, 龜潭, 五老峰, 伐川城, 丹陽邑村, 獨樂城, 舍人巖, 橋內山, 鶴谷	
오원	淸峽日記	서울-광주-여주-원주-충주-청풍-단양청풍-충주-죽산-안성-양성-진위-과천-서울	二老亭, 飛鳥亭, 二陵, 淸心樓, 神勒寺, 龜潭, 可隱峰, 玄鶴彩雲峰, 玉筍峰, 降僊臺, 島潭, 隱舟巖, 舍人巖, 雲巖, 上·中·下仙巖, 守一菴, 桃花洞, 錦屏山, 寒碧樓	말미에 구담과 도담, 한벽루에 대한 평을 기록함

직접 영의정에 추증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종종 반대에 부딪혔고, 정치적으로 위기의 순간 때마다 전장(田莊)이 있는 여강(驪江)에 우거했다.

원경하의 「입동협기」는 1728년 무신란이 발발한 뒤, 피란처를 찾기 위해 시작하여 그와 돈독한 관계였던 김원행 등과 함께한 여정을 기록한 유기이다. 피란과 유람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닌 원경하의 유람은 다른 문인들의 유람과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나 여정에서부터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는 비슷한 시기에 남한강 일대를 유람하고, 원경하의 학문에 영향을 주었던 오원(吳瑗)과 비교하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오원의 「청협일기」는 1722년에 충주를 거쳐, 단양과 청풍 일대를 유람하고 돌아가며 쓴 유기이다. 단양과 청풍 중심의 유람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일정이나 유람 목적에 따라 주요 유람 명소에는 차이를 보인다. 오원은 당시 단양과 청풍의 명소로 손꼽히는 곳들을 모두 유람했다. 특히 현학봉·채운봉, 은주암, 수일암 등 구담이나 도담, 상선암·중선암·하선암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문인들이 찾지 않은 명소들까지 빠짐없이 들렸다.

그러나 원경하가 옥순봉, 도담 등 당시 유람 명소로 잘 알려진 곳에 방문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두 문인이 공통적으로 유람한 명소는 구담과 사인암 뿐이다. 또한 원경하가 피세 공간으로서 독락성을 주목했다면, 오원은 수일

암이 있는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독락성을 짧게 언급할 뿐이다.²⁹

① 구담 위는 층층 절벽이 아찔하였고 장엄하고도 기이하게 솟아 있으니 그 높이가 백여 길이는 되어 보였다. 바위의 색깔은 검은 철을 쌓은 듯하여 鴻濛이 섞여 있는 듯하였고, 온갖 괴이한 만물이 있는 듯하며, 맑은 기운이 이어져 사람을 엄습하였다. … 모든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며 말하길, “쾌재로다. 우리들이 난리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러한 경치를 만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였다.³⁰

② 가은봉과 구봉이 서로 가리어 하나의 별세계를 이루었는데, 3~4리 사이에 우뚝하니 쪽쪽 솟은 봉우리가 좌우에 겹겹이 벌여 있는 것이 모두 푸르게 치솟고 찢긴 듯 깨끗하여 정신이 날아갈 듯 생동하는데 그 기이하고 빼어난 모습을 형용할 수가 없었다. 구봉은 물의 남쪽에 웅장하게 치솟았는데 봉우리의 면면이 모두 깎아지른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붉고 푸른 빛깔이 서로 비추고 있다.³¹

첫 번째 인용문은 원경하의 유기이고, 두 번째 인용문은 오원의 유기이다. 두 인용문 모두 구봉(龜峰)과 구담(龜潭)의 기이하고 독특한 형세에 감탄하고 있다. 그러나 구담의 묘사에 치중한 오원과는 달리, 원경하와 그의 일행은 남한강 유람에서 손꼽히는 장관 중에 하나인 구봉을 볼 수 있었던 것도 무신란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한다. 무신란을 계기로 피란처를 찾는 유람을 시작했지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이들에게 유상지로 유명한 명소들을 둘러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피란처를 찾는 와중에 만난 선경은 본래 유람 목적과는 다르

29 吳瑗, 『月谷集』 권9 「淸峽日記」, “菴在上僊巖下數十步 其上爲獨樂城古址”.

30 元景夏, 『蒼霞集』 권7 「入東峽記」, “潭上層壁懸崖 壯聳奇拔 其高百餘仞. 巖色如積鐵 鴻濛融結 怪偉萬狀 淑氣霏霏襲人. … 諸人大叫曰 快哉快哉 吾輩非亂離 何能到此界?”.

31 吳瑗, 『月谷集』 권9 「淸峽日記」, “回望潭首 亦可隱龜峰 蔽互作一區別世界 而三四里間 峰巒疊疊 羅疊左右者 皆蒼靄洗刷 精神飛動 奇象逸態 莫能摹狀. 龜峰則雄峙水南 峰面皆全石轟削 丹碧相照映”.

지만 속세와 멀어져야 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지니므로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공간이기도 하다.

본래 이상적인 탈속 공간인 ‘무릉도원(武陵桃源)’도 진나라 때 난리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그렇기에 피란처와 탈속적인 공간인 선경(仙境)은 이처럼 크게 다른 공간이 아니다. 그러나 원경하의 인식에서 궁벽하고 험벽하여 독특한 자연환경이 조성한 아름다운 풍경이 전제되어야 하는 은자의 공간이나 선경과는 달리, 피란처는 미감(美感)보다는 숨어서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기이함’보다는 ‘험벽함’이 도드라져야만 했다.

원경하가 찾아간 여러 명소 중에 교내산(橋內山)에 대해 주목할 필요도 있다. 전술하다시피 교내산은 예로부터 난리를 피하여 몸을 숨기기에 좋은 곳으로 유명했다. 원경하는 교내산에 찾아가고자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교내산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귀의 묘사를 통해 교내산이 피란처로서 무척 알맞은 장소이며, 그 주변의 형세가 무척이나 험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곡에서 출발하여 10리 정도 가서 고개 하나를 넘어 鶴谷에 이르렀다. 골짜기 가운데는 평탄하고 넓찍하여 거주하는 백성이 100여 호이며, 첩첩이 겹친 산봉우리가 둘러싸고 모인 형상이다. … 난리에서 도망쳐 몸을 숨긴다면 또한 만전을 기할 만한 승지라고 할 만하다.³²

산봉우리가 모여 에워싼 형상이기에 그 궁벽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직접 교내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피란처로 좋은

32 元景夏, 『蒼霞集』 권7 「入東峽記」, “自金谷離發行十里 踰一嶺到鶴谷. 洞中平潤 居民百餘戶 巒巘複峰 環擁攢簇. … 逃亂藏身 亦可爲萬全勝地”.

곳이라고 하며 교내산에 대한 감상을 남겼다. “첩첩이 겹친 산봉우리[疊巘複峰]”는 높은 봉우리가 겹겹이 솟은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지만, 이는 기이하고 탈속적인 공간을 묘사하기 위함이 아닌, 세상과 단절되어 봉우리 속에 숨겨진 공간이 눈에 띄지 않는 험난함을 묘사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피란처 찾기라는 목적의식이 동반된 유람이기에 원경하의 유기에는 피란처에 대한 언급이 자주 보인다. 별천성(伐川城)이 몸을 숨기기에 좋다는 말을 전해 듣기도 하고,³³ 피란처라고 잘 알려진 가차산(駕次山)에 찾아가 독락성이 몸을 숨기기에 좋다는 말을 인근의 거주민에게 전해 듣기도 했다.

내가 묻길, “적병이 만약 이곳에 이르면 장차 어찌합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장생이 동남쪽의 한 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곳은 이른바 독락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험준하여 적을 피하기에 좋습니다. 성 아래에 내려간다면 만 명이 쳐들어와도 열지 못하는 형세입니다.”³⁴

원경하가 가차산에 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터를 잡고 사는 백성들이 있었다. 거주민이 그의 아들을 데리고 오자 난리가 날 때 처신 방법을 묻고, 독락성이 좋은 피란처임을 듣게 된다. 실제로도 독락성은 『대동지지』에서 “군의 동남쪽에 있는데, 서·남·북쪽은 몹시 험악하고 동쪽만은 사다리가 만들어져 있지만, 이리저리 돌이 흠어져 험하다. 중턱쯤 올라가면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옛날 난을 피했던 곳이다.”³⁵라고 했다. 실제로도 피란처였으며, 험악

33 元景夏, 『蒼霞集』 권7 「入東峽記」, “陶基宋生時心來訪 盛言亂世欲避身 伐川城金爲第一福地云”.

34 元景夏, 『蒼霞集』 권7 「入東峽記」, “汝問曰 賊兵萬一到此地 將奈何? 張生指東南一峰曰 此所謂獨樂城 險峻可避賊 雖至城下 有萬夫 莫開之勢云”.

35 『大東地志』 권6 「忠淸」, “獨樂城 在郡東南 其西南北皆峻絕 唯東面略設堞 履亂石崎嶇乃登. 中有雙川 可容數千人 古避亂處”.

한 지형이었다.

이처럼 원경하의 유람은 목적성이 분명하며, 다른 유람자들과 차별되는 감상을 보인다. 그에게 험벽한 공간들은 선경 또는 은거지의 전제 조건인 ‘탈속’ 공간이 아니라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유람은 무신란을 통해 피란 경험을 한 이의 생존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게 발현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유람의 목적과 산수 공간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만큼, 무신란에 대한 경험이 원경하 개인에게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2. 전장 상실의 고통과 기다림, 안중관의 「동피록서」와 한시

회와(悔窩) 안중관(安重觀)은 충주의 가흥촌에서 자신의 전장을 마련한 인물로 그가 은거를 택한 계기는 표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크게 연루된 사건도 없었으며, 외직에 있기는 했지만 꾸준히 관직 생활을 했다. 다만 안중관이 관직에 있던 당시 정치 상황이 노론에게 불리했던 상황이기엔 은거를 택한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안중관은 1721년에 세자의 위사(世子翊衛司) 세마(洗馬)가 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 충주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충주로 내려왔으며, 1728년에 무신란이 발생하자 잠시 제천으로 피란 갔다.

내가 정미년 가을에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와 살고 있었다. 올해 계춘이 끝나갈 무렵에 청주의 광분한 자가 난리를 일으켰기에 가숙을 이끌고 강을 건너고 月阿嶺을 넘어 제천의 陶村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다. … 나는 곤궁한 사람이라 집에 노복과 말이 없었기에, 다만 아이들과 견고 달릴 뿐이라 날마다 50리를 걷다 보면 발에 상처가 나고 다리가 육신거리며 배고픔과 갈증이 번갈아 찾아와 어린아이

가 울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전대 속의 곡식도 며칠 만에 다 떨어져 날마다 산과 계곡에서 풀을 캐어 쭉정이와 함께 아침과 저녁을 때웠다. 그 위험하고 어려움의 경험을 알 만하다.³⁶

안중관이 제천으로 피란을 가며 그 생생한 경험을 기록한 「동피록서」로, 거처를 떠난 이의 피란의 경험과 처절한 고통이 기록되어 있다. 충주에서 제천까지의 거리를 온 가족이 걸어가며 피곤과 굶주림에 고통스러워했다.

안중관은 1721년에 스스로 은거를 택한 이후, 언제나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은거 이후의 녹록치 못한 삶을 노래했다. 충주에서 자신의 전장인 밀와(密窩)를 완성하며, 전장을 마련한 사실에 안도를 표하면서도 생각보다 작게 완성된 공간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³⁷ 그러나 은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안정을 찾게 되어 그가 지냈던 불우 의식은 점차 열어지고 속세와 멀어져 자적(自適)하는 태도를 보인다.³⁸

그러나 스스로 택한 은거가 아닌 피란을 목적으로 한 제천행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게 했다. 특히 그는 고단하고 험난한 피란 과정에서 위험

36 安重觀, 『悔窩集』 권4 「東避錄序」, “余以丁未秋 去官鄉居. 及是年季春之末 遑清州狂寇之難 挈家屬 過江逾月 阿嶺 僑處于堤之陶村. … 余癡人也 家不畜僕馬 只與兒曹步走 日中行五十里之遠 足傷脚疼 飢渴交逼 小兒至有啼泣者. 況囊帛之粟 不能支數日 日採山谿之毛 和糠覈以充朝哺. 其險艱之備嘗 可知也”.

37 安重觀, 『悔窩集』 권1 「治新買小廬 次老杜堂成韻」, “小窩如卵結青茅 滿日春蕪遠近郊. 延入晴江排月戶 招來列嶂剪烟梢. 灌蔬仍掃羣蛇囿 養果兼容衆鳥巢. 可惜初心辜大庇 一區經濟儘堪嘲”. 관직을 벗어나 고향 땅에 전장을 마련하여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했지만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게 된 안중관은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이었음을 깨달았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관념적으로 읊조리고는 했던 은일 의식과 안분지족 정신이 아닌 현실에 부딪힌 사람의 힘든 처지를 적나라하게 읊었다.

38 안중관은 1740년에 원주 흥원으로 이거하는데, 원주에서 읍은 한시에는 은거를 택한 이의 불우의식은 열어지고, 자연에서 흥취를 만끽하는 이의 여유가 드러난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새름, 앞의 논문(2022a)을 참조할 수 있다.

과 불안감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의 위기 의식은 그가 간직하고 있던 보검(寶劍)의 존재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중관의 시 「증보도(贈寶刀)」는 자신이 간직 하던 보검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 쓸모를 알지 못하다가 피란길에서 손에서 놓지 않으며 소중하게 지니고 다니면서 얻은 깨달음을 읊은 작품이다.³⁹ 늘 손에서 검을 놓지 못했다는 언급에서 당시 안중관이 느낀 불안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안중관에게 피란처인 제천은 언제나 불안하고 전장을 떠난 나그네의 심정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다.

「두보의 시를 차운하다」

40년 태평한 일 옛날부터 드문 일인들	四紀昇平終古少
어찌 전란이 이번 해에 있음을 알았겠는가?	豈知金革動茲年
귀밑머리 흩날리며 텅 빈 산에 있다 보면	飄飄短髮空山裏
튼 구름 어둑해져 지는 해 끝에 머무네	黯黯浮雲落日邊
몇 잔 술에 수심 돌아 검 통기며 울었고	小酒撩愁彈劍哭
외론 등불 한을 비춰 책을 베고 잠들었네	孤燈照恨枕書眠
가련토다, 준마는 심한 병이 든 채로	可憐騏驎玄黃甚
금대 향해 돌아보며 연 땅을 무척 그리워하네	回首金臺重憶燕 ⁴⁰

39 安重觀, 『梅窩集』 권1 「贈寶刀」, “余嘗得一口劍 長三尺餘 匣而藏之 幾十年. 綉澁不作色 常青 熒 試於物 無堅錯疑 寶刀也. 雖知愛之 無所用 徒掛諸壁間而已. 是年春 去寇亂 東入堤峽. 携之 與俱 行住坐臥 不捨須臾 以防虎豹寇盜之虞. 有時獨寢 必脫之室而置于身旁 心若有所倚仗 隱然 勇夫猛士之相守然 喜可知也. 夫平日無事 殆不省其可重 而及當變故 所以藉力也如此 豈物之遭遇 固亦有其時耶. 靜言思之 有足以感余衷者 爲賦一律以贈之 劍之有靈 其或知之”. 인용한 부분은 시의 小序에 해당한다.

40 安重觀, 『梅窩集』 권1 「次杜律」.

이 시는 두보의 「한별(恨別)」에 차운한 작품이다.⁴¹ 안중관은 두보의 시를 자주 차운했는데, 그는 「동피록」에서 두보의 「북정시」를 언급하며 전란으로 인한 고통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 차운한다고 했다.⁴² 인용 작품은 두보의 북정시를 차운한 작품은 아니지만 유사한 시적 상황과 정서를 지닌 시에 차운하며, 자신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시에서 안중관은 예로부터 오랜 기간 태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처럼 화란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그렸다. 또한 난리를 피해 온 자신의 모습을 병든 천리마라고 빗대며, 현재 자신의 처지는 인재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난리가 평정되어 금대(金臺)에 다시 인재가 몰리기를, 혹은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는 때가 있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높은 곳에 올라」

높은 곳 오르니 수심에 더욱 아득하니	登高愁思益茫然
눈 가득 남은 봄은 참으로 가련토다	滿目殘春正可憐
涿野로 간 군사 장병 기세는 막막하고	涿野干戈氛漠漠
旄邱는 갈수록 칩덩굴 길기만 하네	旄邱日月葛綿綿
부질없이 나라 걱정애 袁生은 눈물 짓고	袁生有淚空憂國
다시 하늘에 물어보지만 庾子는 기대 없네	庾子無心更問天
호숫가 별장 새로 약초 둘러 심었는데	湖墅新栽花藥遍

41 해당 작품의 원시는 아래와 같다. “洛城一別四十年 胡騎長驅五六年. 草木變衰行劍外 兵戎阻絕老江邊. 思家步月清宵立 憶弟看雲白日眠. 聞道河陽近乘勝 司徒急爲破幽燕”.

42 安重觀, 『梅窩集』 권4 「東避錄序」, “試以此錄 參之於周唐宋三子者之述作 則雖人有賢愚之分 事有大小之異 辭亦有美惡之殊者 然其感激憂憤之特出於一段忠孝之衷者 竊自以未始不同云爾”.

먼 곳을 보는 행위는 언제나 그리움의 감정을 동반한다. 멀리서 올, 자신이 바라는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다. 당시 안중관은 무신란이 마무리되어 다시 자신의 전장으로 돌아가고 싶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터였다. 인용시는 특히 다양한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표출한 것이 특징이다.

3구의 탁야(涿野)은 탁록현의 들판을 말하는데, 황제(黃帝)가 군사를 보내 이곳에 난을 일으킨 괴물을 죽였다고 하는 고사가 전한다. 4구의 모구(旄邱)의 줍이 길다는 표현은 『시경』의 한 구절인 “모구의 줍이여, 어찌 이리도 마디가 길어졌는가[旄丘之葛兮 何誕之節兮].”에서 온 것으로 줍이 자랄 정도로 전쟁이 오래되었음을 의미한다. 무신란이 쉽게 진압되지 않아 자신의 피란도 길어짐에 한스러운 마음을 여러 고사를 활용하여 드러냈다. 5구와 6구는 원안(袁安)과 유신(庾信)의 고사를 써서 자신의 심정을 대변했다. 원생(袁生)은 후한 때의 문신으로 나라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린 원안(袁安)을 말하며, 유자(庾子)는 유신(庾信)을 말하는데, 그는 후경(侯景)이 반란을 일으켜 도성인 금릉(金陵)까지 들어오자 피신하여 은둔 생활을 했다. 후에 고국이 망하고 북주의 무제가 그의 재주를 아껴 극진한 예우를 해 주었으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애강남부(哀江南賦)」를 지었다.

미련(尾聯)에서 드러나듯 안중관은 그 무엇보다 자신이 터전을 마련한 충주를 그리워했다. 충주의 물가에 자신이 새로 심은 약초밭도 걱정하며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다. 제천은 그에게 전장과 안식처를 마련한 충주와 구분되는, 오직 피란을 위한 공간이었기에 벗어나야만 하는 공간이었다. 그렇기에 안중관이 제천에 머물면서 쓴 문학 작품에는 현실에서 받는 고통이 생생하게

43 安重觀, 『悔窩集』 권1 「登高」.

묘사되거나 충주를 그리워하는 마음, 귀향을 고대하는 뜻이 표출되었다.

안중관은 충주에서의 은거를 다짐하며 전장을 마련하고 독서 공간인 밀와(密窩)를 마련하며, 소박한 공간이지만 은일의 뜻을 편히 누릴 수 있음에 만족스러워했다. 안중관은 “내가 늙기 시작하며 병이 많아지고, 지금 세상에 대한 뜻도 이미 사라져 장차 여기에서 자취를 거두어 생을 마감하고자 하였다.”⁴⁴ 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충주의 전장을 애정했다. 이는 제천에서 그가 괴로워 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고향에 돌아가며 감회를 써서 여러 공들에게 보여주다」

타향살이 하룻밤 새 3년이 지나	羈棲一日抵三年
고향땅에 돌아가니 기쁘도다	故里歸來得暢然
근심 걱정 뒤로한 채 술 연거푸 마시고	盃酒重啣憂患後
담소를 다 나누기 전에 강산은 끝이 없네	江山不盡笑談前
질은 안개 조금 걷힌 사이로 달 떴으며	稍開宿霧方生月
잠깐 장마 개자 하늘도 곱다네	乍卷淫霖正色天
다만 바라는 건 편히 옛날로 돌아가	祇願昇平還舊日
나에게 배불리 먹을 전답 허용해 주길	容吾鼓腹老耕田 ⁴⁵

인용문은 안중관이 긴긴 피란 생활을 끝내고 다시 자신의 전장이 있는 충주로 돌아오며 쓴 시이다. 하루가 3년과도 같이 느껴질 만큼 길고 지리한 시간들을 보낸 안중관은 이별의 아쉬움을 보여주는 하지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충주는 자신의 ‘전답[耕田]’이 있어

44 安重觀, 『悔窩集』 권5 「名新窩軒亭記」, “余始老而多疾 當世之志既衰 則要將收跡於此 以畢其年”.

45 安重觀, 『悔窩集』 권1 「返故里感賦 示諸公」.

편안함을 주지만 피란처인 제천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한강 유역 중 한 곳인 충주에 은거한 안중관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적극적으로 전장을 마련하며 노력했지만, 피세처에서 쓴 작품에서는 현실의 고통이 강조되며, 지금 현실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만이 표출된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괴로움이 아닌, 그저 이 순간이 끝나기를 바라는 지리한 고통이자 기다림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안중관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세’를 했지만 은거지인 충주와 피란처인 제천을 명확하게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3. 피세와 은일 사이 불우 의식, 김신겸의 화도시

증소(檜巢) 김신겸(金信謙)은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의 아들이다. 1722년에 김창집이 신축옥사(辛丑獄事)로 인해 화를 당하자, 그도 연루되어 안변(安邊)에서 약 3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다. 1725년에 해배(解配)되었으나, 이후 관직을 사양하며 지냈다. 본래 그는 보령의 청연(靑淵)에서 머물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곳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러나 1728년 무신란이 일어나고, 상황이 급박해지자 김신겸은 제천으로 피란 갔다. 민우수가 쓴 그의 행장에 따르면, “집이 채 완공되기도 전에 무신년의 역란(逆亂)을 당해서 제천과 영월 사이로 피란 갔다가 난이 그치자 다시 청연으로 돌아왔다.”⁴⁶라고 적혀 있다.

실제 김신겸은 무신란을 피해 1728년 4월에 제천으로 향했고, 이듬해 영월로 이거했다. 그가 보령으로 돌아간 때는 무신란이 발발하고 2년 뒤인

46 閔遇洙, 『貞菴集』 권13 「檜巢金公行狀」, “卜居保寧之靑淵 築室未成 值戊申逆亂 避地堤川寧越之間 亂已還靑淵”.

1730년이였다. 유배가 끝난 뒤 거처를 마련하고, 안정된 삶을 꾀했던 김신겸은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무신란이 발발하자 내성군(奈城郡)에서 제천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때 그가 느낀 제천에서의 삶과 심정은 「四月二十七日 發自韓山入東峽 用陶詩移居韻」에서부터 이듬해인 1729년 영월로 이전하기 전에 쓴 시 「戊申除夕在義原 以客心何事轉悽然爲韻志感 何處悲前事例首句」까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간에 영월 및 태백산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쓴 시들이 있지만 대체로 제천에서 쓴 작품들이다.

김신겸은 제천에서 쓴 시에서 “처음 내성군에 갔다가, 피란처로 이 계곡에 왔다네[初來奈城郡 避地得此谷].”라고 하며 피란을 위해 제천에 왔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해당 작품에서 김신겸은 제천이 숲이 깊고, 땅이 비옥한 제천이라는 공간에 만족하면서도 자적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심지어 김신겸은 은거조차도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운이 따라주지 않은 자신의 상황을 한탄했고, 이러한 의식을 특히 화도시를 통해 해소했다. 김신겸이 평생에 걸쳐 창작한 시 중에 화도시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는 유달리 1728년에 화도시를 창작했다.

이는 김신겸이 무신란의 상처를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화도시를 활용한 것이라 추측한다. 그로 인해 김신겸이 제천에서 쓴 시는 조선 문인들의 다른 화도시에 비해 불우함이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도드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4월 27일에 한산에서부터 동협으로 들어가며 도연명의 「이거」시에 차운하다」

깊고 그윽한 서해 물가에서	窈窕西海濱
형제 모두 한 집에서 경영하며	弟兄營一宅
땅 일구며 남은 생애 보내고	耕稼沒餘齒
금서는 온종일 즐겼건만	琴書娛晨夕

어찌하여 이런 삶에 변란 생겨	胡爲變此計
돌아다니게 되어 멀리 떠나왔나	棲棲又遠役
고래는 아직 숨지 않았는지	鯨鯢未戢鱗
재앙 넘쳐 자리까지 끼쳤다네	氛漲逼几席
근심 걱정 남북은 다르고	憂虞異南北
피란은 땅 옛날과 오늘은 다르구나	避地殊今昔
영원토록 바라건대 花源 안에서	永願花源內
나의 골육이 흩어짐만 면하기를	骨肉免離析 ⁴⁷

이 시는 무신란이 발발하자 한산에서 제천으로 이거하며 쓴 글이다. 시의 전반부는 가족들이 단란하게 모여 살던 때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김신겸은 1722년에 신임사화로 인해 백부인 김창집과 벗인 이희지(李喜之, 1681□1722), 이기지(李器之, 1690□1722), 김룡택(金龍澤, ?□1722), 이천기(李天紀, ?□1722)와 작별해야만 했다.⁴⁸ 그렇기에 함께 모여 있는 이 시간이 더욱 소중했을 터였다. 그러나 무신란이 일어난 뒤 다시 위기를 맞게 된 김신겸은 자신의 거처와 멀리 떨어진 제천까지 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이산(離散)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7구의 ‘경예(鯨鯢)’는 고래의 수컷과 암컷을 가리키는 말로, 작은 나라를 삼키려는 이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무신란을 일으킨 이인좌와 그에 동조하는 무리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들에게 아직 움츠러들 기미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김신겸은 심란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그렇기에 마지막 구에서는 다시 한 번 이산의 슬픔을 언급하며, 이번

47 金信謙, 『檜巢集』 권3 「四月二十七日 發自韓山入東峽 用陶詩移居韻. 二首」.

48 김신겸의 시, 「堤川邑村 夢與士復·士安·德雨·德輝·啓元 對飲高樓 各賦一律. 覺後只記首韻 四句及第五句 仍續成志感」에는 세상을 떠난 벗들을 향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묻어난다.

표2-김신겸의 화도시 창작 양상⁴⁷

시제	창작 년도	원운
和陶詩移居韻	1724년 이후 추정	移居
上浮山 和淵明斜川詩韻示儀韶	1727년	遊斜川
三月三日 聞介湖主翁族兄時保爲賞梅花來茅島 往待花下. 次淵明游斜川詩韻	1728년	遊斜川
四月二十七日 發自韓山入東峽 用陶詩移居韻	1728년	移居
義林池 用阻風於規林韻. 二首	1728년	庚子歲五月中從都還阻風於規林
用五月旦作戴主簿韻	1728년	五月旦作和戴主簿
祗過莊陵 用述酒韻志感.	1728년	述酒
拜彰節祠 用咏三良韻	1728년	咏三良
用別殷晉安韻 送士心謙之出山	1728년	與殷晉安別
奈城東二十里 始見崇山巨川 峯激瀉 似入百淵谷口 上下有數三村落 地名蓮池洞. 又東去五里 踰數嶺而入 得一處稍夷廣 可容數家居 出谷宿村家. 用歸田韻.	1728년	歸田園居
雨淹蓮池村旬餘 居人盡出 柴扉寂然. 乍晴輒就溪上逍遙而歸. 適值濁醪新熟 主媼歡飲 隨感雜咏 倣次飲酒韻. (20수)	1728년	飲酒
益謙約携琴師 來宿石郊閒樓 翌日報以病不能來 請留一語而別. 次淵明韻贈之.	1728년	答龐參軍
送希文向都下 次淵明於王撫軍座送客韻奉贈	1729년	於王撫軍座送客
九日和淵明己酉九日韻	1729년	己酉歲九月九日
卧病九十日 值重九. 天氣甚佳 有酒不能飲 撥菊悵焉. 遂次淵明九日韻.	1731년	九日閑居

난이 끝난 뒤에 다시 가족들과 친척들과 헤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뜻을 그렸다. 이처럼 김신겸에게 제천은 이산의 고통을 실감하게 한 공간이었다.

49 해당 표는 이새롬, 앞의 논문(2022c), 450~451쪽에서 제공한 것을 인용한 뒤 일부 수정한 것이다.

「도잠의 '5월 1일 대주부에게 화답하여 짓다[五月旦作和戴主簿]'에 차운하다」

깊이 더듬어 이치 찾아내려 하지만	冥搜類繹理
가도 가도 결국엔 끝이 없다네	去去遂不窮
산천은 아득히 둘러싸였고	山川莽回複
갈림길 많아 한 가지 갈 곳 찾지 못했네	歧路多非中
도끼는 밑바닥까지 침범하니	斧斤到底侵
여름 나무 녹음 질지 못하네	夏木猶不豐
못 물고기 수조 깊은 곳에 모여들고	淵魚聚深藻
골짜기 난초 청풍 따라 멀리 향 보내네	谷蘭遠清風
보이는 것마다 깨달음 있노라니	觸物有契悟
홀로 여생 달게 끌어안을 것이라	抱獨甘長終
다만 한스러운 건 화병이 돌아	但恨熱心腸
왕왕 그 화평함을 잃는 것이네	往往失其冲
이 세상도 끝이 있을 것이니	天地亦有盡
세운이 어찌 영원히 높으리오?	世運豈永隆
어찌해야 이 땅에서 벗어나	何當謝鰈域
한 번 푸른 하늘에서 유영하려나?	一舉游碧穹 ⁵⁰

도잠의 시 「5월 1일 대주부에게 화답하며 짓다[五月旦作和戴主簿]」는 자연의 변화에서 깨달음을 얻고 시운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임을 깨달은 후 미련을 버리고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뜻을 표출한 작품이다. 김신겸도 도잠의 시상을 따라 이치를 궁구하지 못한 답답함에서 제천의 풍경을 만나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 과정을 그렸다. 이때 김신겸의 마음에

50 金信謙, 『檜巢集』卷3 「用五月旦作戴主簿韻」.

깨달음을 주는 제천의 풍경은 한가롭고 그윽한 자연의 상태이다. 인용시에서 묘사된 공간은 ‘피란처’보다는 ‘은거지’라 하기에 알맞아 보인다. 김신겸은 피란을 와 있는 자신의 처지를 시운이 맞지 않았다고 여기면서도, ‘피란’이 아닌 ‘은거’로 제천의 풍경을 대했다.

안중관과 원경하는 무신란이 발발했을 때, 이미 자신의 전장을 마련한 뒤였다. 그러나 김신겸은 해배한 뒤, 미처 자신의 은거처를 완성하기도 전에 그곳을 떠나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피세처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빨리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고자 했던 안중관과 달리 김신겸은 불우 의식은 강하지만 귀향을 향한 의지는 강하지 않았다.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무신란이 정리된 뒤 곧장 충주로 돌아간 안중관과 달리 김신겸은 오히려 자신이 자리 잡았던 보령과 더 거리가 먼 영월로 이거했다. 아직 자신만의 은거 공간을 완성하지 못한 김신겸에게 ‘피란’이라는 현실은 자신의 불우 의식을 심화시켰지만 피란처인 제천은 자신이 생각한 ‘피세’, 곧 세상과 멀어지기 좋은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신겸은 자신의 작품에서 제천을 그윽한 은거처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음주」 20수에 차운한 작품은 제천의 연지촌이라는 공간과 함께 그가 제천에서 느낀 세상을 향한 자조와 그가 본래 지녔던 은일의식이 혼재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⁵¹

넓고 깊은 물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汪瀾較誰量
어룡이 거처하고도 남을 만한 곳이라네	剩容魚龍居
선선의 유허가 남아 있어	仙人有遺址
우름으로 일컬어지는 옛 이름 여전하다네	舊號猶稱于
기묘한 산봉 그림자 멀리 거꾸로 비치니	奇峰倒遙影

51 이새롭, 앞의 논문(2022c), 453쪽.

「의림지에서 도연명의 시 ‘규림에서 세찬 바람에 막히다[阻風於規林]’에 차 운하여」의 전반부이다. 이는 제천을 속세와 완전한 단절되지 않은 공간이라 여기며, 더욱 먼 곳으로 향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다. 인용된 부분만을 본다면 김신겸이 의림지의 풍경을 묘사하며 제천을 한가로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화를 피하기 위한 공간이지만 김신겸은 속세와 단절된 그윽한 공간인 제천을 피세처라기보다 은거지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철저히 자신의 전장이 있는 충주와 피란을 간 제천을 구분한 안중환과 달리 김신겸은 피란과 은거의 구분이 모호하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무신란이 일어나자 남한강 유역으로 피란을 온 문인들의 기록과 문학 작품을 통해 피세 공간으로서의 남한강 유역의 이미지를 고찰했다. 관련 작품을 고찰하여 남한강 유역이 무신란을 겪은 문인들의 고통, 좌절, 등의 심리가 문학적으로 투영된 공간임을 확인했다.

예로부터 남한강 유역은 수로를 통해 한양에 접근하기가 쉬웠고 산과 강이 어우러진 승경 등이 있어 조선 후기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많은 문인들이 은거 공간으로 택했다. 그런데 조선 후기 문인들은 은거처와 피세처를 구분했고, 그 구분은 남한강 유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남한강 유역 중 여주·충주·원주는 한강과 가깝고 조창이 있어 살기 좋은 가거처 혹은 은거지

52 金信謙, 『檜巢集』卷3「義林池用阻風於規林韻」.

로 인식되었으며, 지세가 험난하고 외진 단양·제천 등은 피세처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무신란이 발발하자 남한강 유역에서 은거를 택한 문인이 남한강 유역 중에서도 산세가 험한 지역이나 지리지 및 비기서에서 피세처로 언급된 공간을 찾아가고,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

무신란이 발발하자 노론계 문인들은 위협을 느껴 피란을 갔다. 대표적으로 피세처를 찾아 유람을 떠난 원경하의 유기와 충주에서 은거하다 제천으로 피란을 간 안중관의 「동피록서」와 시 작품, 제천으로 피란을 간 김신점의 화도시를 손꼽을 수 있다.

원경하의 유람은 목적성이 분명하며, 남한강 유역을 유람한 이들과 여정은 물론이고 동일한 공간에서도 그 감상이 차이를 보인다. 잘 알려진 명소가 아닌 험박한 곳이나 선경과 비견되는 공간을 찾아다녔기에 그의 유기 속 공간 묘사는 ‘탈속’보다 ‘단절’에 중심을 두었다. 유람의 목적과 산수 공간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만큼, 무신란에 대한 경험이 원경하 개인에게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안중관은 충주에서 ‘밀와’라는 자신만의 공간을 조성했고 자신의 작품에서 갑작스럽게 피란을 떠난 이의 고통을 절절하게 표현했다. 특히 그의 시에서는 충주에 자신이 조성한 전장을 여러 차례 언급되며 언제든지 충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향’ 의식이 짙게 드러난다. 제천은 안중관에게 고향을 떠나 잠시 머무는 ‘피세처’일 뿐이기에 은거지나 가거지가 될 수 없었다.

김신점은 신임옥사로 유배를 갔다 해배 이후 보령에 전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전에 무신란이 발발하여 제천으로 피란을 왔다. 은거지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피란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된 김신점은 자신의 불우의식을 화도시로 표출했다. 한편, 김신점은 안중관이나 원경하와 달리 본래 자신의 전장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피란을 왔기 때문에 제천을 피세처로 인식하기보다는 은일 의식을 심화시키는 공간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 문인은 자신의 처한 상황 및 은거처의 존재 유무, 목적 의식에 따라 남한강 유역의 피세처에 머물렀다는 공통점에서 불구하고 그들의 작품속에서 형상화된 문학적 공간 인식에서 차이는 보인다. 전장 및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한 김신겸은 ‘피세’를 ‘은거’처럼 인식했다. 이와 달리 원경하와 안중관은 단양 및 제천을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으로 인식했다. 또한 유람을 형태로 단양 일대를 찾은 원경하는 호기심 어린 태도를 보이지만 안중관은 피란민의 고통을 호소하며 제천을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한 점이 특징이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은거지 및 유람지로서 인식된 남한강 유역의 또 다른 의미를 재구했다. 이러한 시도가 남한강 유역의 다양한 공간성을 밝히는 것을 물론이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치를 밝히는 단서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金信謙, 『檜巢集』.
閔遇洙, 『貞菴集』.
安重觀, 『梅窩集』.
吳瑗, 『月谷集』.
元景夏, 『蒼霞集』.
李奎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李植, 『澤堂集』.
李胤永, 『丹陵遺稿』.
李重煥, 『擇里志』.
『東國輿地志』.
『大東地志』.

2. 논저

고수연, 「『戊申逆獄推案』에 기록된 戊申亂 叛亂軍의 성격」, 『역사와 담론』 82, 2017.
고연희, 「金昌翁, 李秉淵의 山水詩와 鄭敼의 山水畫 비교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20, 1997.
권경록,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文學地理 연구: 楊根·驪州·廣州 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세호, 「조선 후기 丹陽 舍人巖에 살았던 사람들」, 『한문학논집』 65, 2023.
김은정, 「金昌翁의 丹丘유람과 문학적 형상화」, 『어문학』 141, 2018a.
김은정, 「安東 金門의 四郡 유람 연구」, 『돈암어문학』 34, 2018b.
김윤조, 「암벽에 이름 새기기 풍조의 유행과 단양 사인암에 새겨진 이름에 대한 고찰」, 『한국실학연구』 39, 2020.
김주부, 「息山 李萬敷의 山水紀行文學 研究: 『地行錄』과 『陋巷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박상석, 「전란에 뒤흔들린 민간인의 일상: 민간인의 戊申亂 체험 실기 연구」, 『열상고전연구』 54, 2016.
박은순, 「朝鮮時代 南漢江 實景山水畫 研究」, 『운지논총』 26, 2010.

- 변주승, 「18세기 전라도 지역 무신란의 전개과정: 『戊申逆獄推案』을 중심으로」, 『인문과 학연구』 39, 2013.
- 안대회, 「조선 후기의 좋은 집터, 이상적 거주공간의 이론과 실제: 『임원경제지』 「상택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 2019.
- 양승목, 「조선후기 십승지론의 전개와 '살 곳 찾기'의 향방」, 『한국한문학연구』 63, 2016.
- 양승목, 「조선후기 살 곳 찾기 현상의 동인과 다층성: 십승지와 『택리지』 그리고 그 주변」, 『한국한문학연구』 84, 2022.
- 여강석, 「조선 시대 문인들의 시문에 나타난 '충주(忠州)'에 대한 지역 인식」, 『국제어문』 82, 2019.
- 윤경희, 「金昌翕의 丹丘日記 연구」, 『민족문화연구』 41, 2004.
- 윤지훈, 「淸風의 山水를 素材로 한 漢文學 作品의 諸特徵: 龜潭과 玉筍峯 關聯 作品을 中心으로」, 『동방한문학』 72, 2017.
- 이대형, 「洪直弼의 寧越 유람과 節義의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8, 2005.
- 이상배, 「조선시대 남한강 수운에 관한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5, 2000.
- 이새롬, 「朝鮮 後期 文人의 南漢江 流域 空間 認識과 詩의 形象化」,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2a.
- 이새롬, 「조선 후기 은일 공간으로서의 충주」, 『충주학연구』 1, 2022b.
- 이새롬, 「檜巢 金信謙의 隱逸 의식과 시세계」, 『고전문학연구』 62, 2022c.
- 이중환(저), 안대회·이승용(역), 『완역 정본 택리지』, 서울: 휴머니스트, 2018.
- 이태희, 「朝鮮時代 四郡 山水遊記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태희, 「조선시대 四郡 관련 산문 기록에 나타난 도교 문화적 공간인식의 양상과 의미」, 『코기토』 81, 2017.
- 정지영, 「조선시대 유토피아의 양상과 그 지리적 특성」, 『문화역사지리』 17, 2005.
- 최선희, 「丹陵 李胤永의 시문에 나타난 영남의 인상: 1728년 戊申亂의 흔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7, 2014.
- 한종구, 「충청지역 십승지지의 고찰」, 『동방학』 45, 2021.
- 허원기, 「다산 정약용의 남한강 심상 지리」, 『국제어문』 59, 2013.
- 허태용, 「1728년 戊申亂의 진압과 『戡亂錄』의 편찬」, 『한국사연구』 166, 2014.
- 허태용, 「英祖代 蕩平政局下 國家義理書 편찬과 戊申亂 해석: 『勘亂錄』, 『御製大訓』, 『闡義昭鑑』의 비교 검토」, 『사학연구』 116, 2014.
- 황재문, 「1728년 戊申亂 관련 문헌의 재검토」, 『국문학연구』 49, 2019.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무신란(戊申亂)이 일어나자 남한강 유역으로 피란을 온 문인들의 기록과 문학 작품을 통해 피란처로서의 남한강 유역의 이미지를 고찰한 연구이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가거지(可居地)와 피세지(避世地)를 구분했다. 남한강 유역 중 여주·충주·원주는 은거지로 인식되었으며, 지세가 험난하고 외진 단양·제천 등은 피란처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무신란이 발발하자 노론계 문인들이 남한강 유역으로 피란했는데, 그 대표적인 문인으로 여주에서 은거하다 피란처를 찾아 단양으로 유람을 떠난 원경하와 충주에서 은거하다 제천으로 피란을 간 안중환, 제천으로 피란을 간 김신겸을 손꼽을 수 있다.

세 문인은 자신의 처한 상황 및 은거처의 존재 유무, 목적 의식에 따라 남한강 유역에 머물렀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품 속에서 형상화된 문학적 공간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은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김신겸은 ‘피란’을 ‘은거’로 인식했다. 이와 달리 원경하와 안중환은 단양 및 제천을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으로 여겼는데, 원경하는 유람으로 방문했기에 피란처를 찾기 위한 호기심 어린 태도를 보이지만 안중환은 피란민의 고통을 호소하며 제천을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한 점이 특징이다.

투고일 2024. 3. 20.

심사일 2024. 4. 15.

게재 확정일 2024. 5. 9.

주제어(keywords) 남한강 유역(Namhan-gang river basin), 戊申亂(Mooshin Revolt), 避世 공간(space of avoiding the world), 노론(Noron; political sect)

Abstract

River Basin in Namhan-gang as a Space of Avoiding the World through Literary Works of Literati who Fled from the Mooshin Revolt

Lee, Saerom

Based on the records and literary works of the literati who came to harborage in the Namhan-gang river basin when the Mooshin Revolt (戊申亂) occurred, this study examined the image of the Namhan-gang river basin as a harborage site.

The literati in the Joseon era distinguished between sites of temporary residence and of avoiding the world. In the Namhan-gang river basin, Yeoju-Chungju-Wonju were recognized as a seclusion site, and Dangyang-Jecheon, and so on, with its rugged terrain and remote location, were recognized as a harborage site. With this perception, when the Mooshin Revolt (戊申亂) broke out, the Noron-gye (political sect) literati harbored in the Namhan-gang river basin and secluded in Yeoju as the representative literati. Examples include Won Gyeong-ha, who went sightseeing to Dangyang in search of a harborage site, Ahn Jung-gwan, who went to harborage in Jecheon after seclusion in Chungju, and Kim Shin-gyeom, who went to harborage in Jecheon.

Regarding the three literati,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y were in, presence or absence of their own seclusion site, and sense of purpose, despite the commonality of staying in the Namhan-gang river basin, a difference exists in the spatial perception embodied in literature. Kim Shin-gyeom, who could not prepare a seclusion site, recognized “harborage” as “seclusion.” By contrast, Won Gyeong-ha and Ahn Jung-gwan viewed Dangyang and Jecheon as places they would have to leave someday. Furthermore, since Won Gyeong-ha visited for sightseeing, he displayed a curious attitude to find the harborage site, but Ahn Jung-gwan recognized Jecheon as a space from which he wanted to escape while complaining about the suffering of harborage refugees.